

'96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

※ 자료제공) 산업경제연구원

국내 경제 전망

올해는 대부분의 업종이 국내경기 둔화와 수출여건 악화로 지난해보다 전망이 밝지 못한 편이다. 일반기계나 철강은 설비투자 둔화에 따라 내수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 보급화된 자동차도 내수부진에서 크게 헤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나 신발도 내수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올림픽 特需가 기대되는 가전, 산업용전자, 전자부품 등은 높은 수요 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는 미국 빅 3의 소형차 경쟁력 강화와 일본의 가격경쟁력 향상 등으로 수출신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전, 전자부품, 산업용전자 등의 수출도 금년보다 신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림픽 特需와 정보통신 관련 품목은 내년에

도 수출호조가 기대된다. 조선은 올해에 세계 선박량의 노후화로 수주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섬유나 석유화학, 철강은 수출물량 증가는 기대되나, 세계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금액은 미미한 증가율에 그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기계는 국내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개도권에 대한 수출증대로 올 수준의 수출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에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내수 부진,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수출부진, 수출물량은 증가하나 수출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의 수출 부진 등 대부분 업종의 내수와 수출이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96년도 주요 업종별 경기 전망

	상 반 기		하 반 기	
	생 산	수 출	생 산	수 출
자 동 차	▲	↑	▲	▲
조 선	⇈	⇈	↑	↑
가 전	▲	↑	▲	▲
산업용전자	↑	↑	↑	⇈
전자부품	⇈	⇈	⇈	⇈
일반기계	⇈	⇈	⇈	⇈
철 강	▲	▽	▲	▲
석 유 화 학	▲	▲	↑	↑
섬 유	▲	↑	▲	↑
신 발	▽	↓	△	↓

▲(▽): 전년 동기비 0~10% 증가(감소), ↑(↓): 10~20% 증가(감소),

⇈: 20% 이상 증가

보인다.

(가전)

올해 국내 가전산업은 원화 절상과 유통시장의 완전개방으로 부분적인 價格競爭力 약화가 예상되나, 애플란타 올림픽 개최와 국내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및 첨단제품의 출시 확대 등으로 전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수출이 올림픽 개최에 따른 고급 AV기기의 수요증가와 아시아 및 中南美를 중심으로 한 新市場 개척 강화로 전년 동기비 12.7%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內需는 대형 히트상품의 부재 속에서도 에어컨을 중심으로 한 냉방기기의 예약 구매 확대, CATV의 보급 증가와 올림픽 개최에 따른 고급 AV제품의 特需로 '95년 상반기보다 12.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下半年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인하와 첨단 신제품의 보급 확대 등으로 內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輸出은 日本系 東南亞기업의 생산구조 조정 완료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 가속화로 증가율이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輸入은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과 소니 등 日本 기업의 국내진출 확대로 전년 동기비 43%의 높은 증가

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가전산업은 전체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輸出과 內需가 각각 10.9%와 14.2%의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공급 측면에서는 生産과 輸入 增加率이 각각 9.5%와 41.5%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용)

올해 국내 産業用 電子機器는 지난해의 내수호조와 수출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져 생산과 수입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어 전년 동기비 18.2%의 수출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며, 內需도 '윈도우즈 95'에 따른 PC 환경의 대용량화로 펜티엄 PC, 1GB급 이

상의 HDD에 대한 수요 급증과 국내통신사업 경쟁체제 구축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전년 동기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에 이어 생산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內需는 노트북 PC 및 멀티미디어 PC 등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신규사업자 선정에 따른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사업화 추진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전년 동기비 22%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輸入은 국내 진출 외국 기업들의 시장확대 및 정보화 투자 확산에 따른 컴퓨터 부문의 수요 증가와 PCS, 무선데이터 등 신규 서비스 제공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수요증대로 올해에 크게 늘어

가전산업의수급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비 %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1995(추정)	13,782(9.2)	1,420(43.9)	7,353(13.2)	7,849(10.4)
1996.상(전망)	7,607(9.7)	955(39.8)	4,459(12.2)	4,103(12.7)
1996.하(전망)	7,484(9.3)	1,054(43.0)	3,937(16.5)	4,601(9.3)

산업용전자기기산업의수급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비 %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1995(추정)	12,563(27.0)	7,802(40.1)	13,193(31.9)	7,172(31.3)
1996.상(전망)	6,682(17.2)	4,386(23.7)	7,270(20.0)	3,798(18.2)
1996.하(전망)	8,144(18.7)	5,346(25.6)	8,732(22.0)	4,758(20.2)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한해 동안 産業用 電子機器産業은 공급측면에서 생산 18%, 수입 24.7%의 증가를 시현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내수 21.3%, 수출 19.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품)

올해해에도 전자부품산업은 세계 시장 확대에 따른 유효수요 급증으로 지속적인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브라운관 등 능동부품은 수요과잉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輸出은 엔高 후퇴와 東南아시아 국가들의 생산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37.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內需는 컴퓨터, 가전제품, 이동통신기기 등의 고급화 및 대형화로 19.2%의 증가율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5인치 이상의 대형 CPT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반도체, LCD 등의 칩화 및 모듈화된 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전자부품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도 수출 및 내수의 증가에 따라 32.9% 증가한 47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단층 PCB, 콘텐서, 스위치 등

범용제품은 원가절감을 위해 中國, 멕시코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 생산을 다소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輸入은 20.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멀티미디어 및 통신기기의 수요 확대에 따른 MPU 등 非메모리 반도체, 다층 PCB 등 고부가가치제품과, 중국 및 東南아시아産지가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기계)

올해 일반기계산업은 설비투자 둔화에 따라 생산, 내수, 수입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모두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생산은 지난해보다 26.9%가 증가한 3백82억5천 1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되는데 내수나 수입 부문에 비해서는 둔화 폭이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신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46.5%로서 규모 면에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아시아지역의 경제가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 생산은 94년의 내수 및 수출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져 94년 동기비 29%가 늘어난 195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기가 다소 둔화되면서 증가율이 94년 동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에서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資本財産業 육성시책의 효과가 서서히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전자부품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비 %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1995(추정)	35,966(46.4)	12,730(31.7)	21,273(29.6)	27,423(53.8)
1996.상(전망)	22,745(42.7)	7,549(20.3)	12,727(21.8)	17,567(49.3)
1996.하(전망)	25,045(25.1)	7,741(19.9)	12,623(16.7)	20,163(28.8)

일반기계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비 %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1995(추정)	30,132(31.3)	20,207(38.0)	43,039(32.7)	7,300(41.7)
1996.상(전망)	19,482(29.0)	12,982(16.8)	27,812(21.3)	4,652(41.6)
1996.하(전망)	18,769(24.9)	10,248(12.7)	22,974(14.2)	6,043(50.5)

다. 올 상반기 증 수출은 동기비 41.6%가 늘어난 46억5천2백만 달러로 예상되며 건설중장비, 냉동공조기계, 공작기계 등이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증 생산은 94년 동기비 24.9%가 늘어난 1백87억6천9백만 달러 예상되며, 수입은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크게 둔화된 12.7%로 전망된다.

반면에 수출은 94년 동기보다 50.5% 늘어난 60억4천3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기업의 수출산업화 노력이 내수 부문의 둔화에 따른 타개책과 함께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전망

국제적인 물가·금리안정에 힘입어 민간소비 및 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회복될 것인데다 개도국과 舊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공업화, 개방화 정책 추진에 따라 이들 국가의 소비·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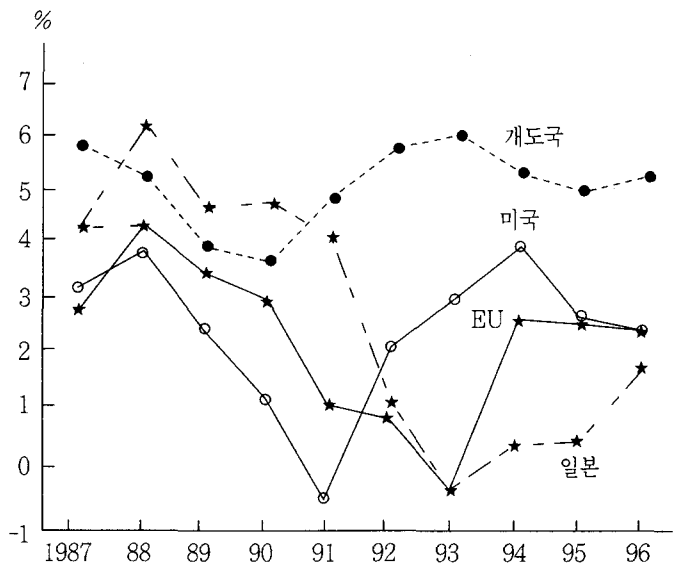
더욱이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 및 확산에 따른 전세계적인 기술관련 투자의 증가와 90년대 들어 급격한 성장 감퇴를 겪었던 러시아 경제의 성장대열 동참도 내년 세계경

세계경제 성장 전망

단위 : %

	1994	1995	1996		
			상반기	하반기	
세 계	2.6	2.8	3.1	3.3	3.2
선 진 국	2.9	2.7	2.5	2.7	2.6
美 國	4.1	2.9	2.6	2.8	2.7
日 本	0.6	0.7	1.8	2.2	2.0
E U	2.8	2.8	2.6	2.8	2.7
(獨逸)	2.9	2.5	2.5	2.7	2.6
(英國)	3.8	2.6	2.5	2.7	2.6
(프랑스)	2.9	2.9	2.6	2.8	2.7
開 途 國	5.5	5.2	5.3	5.6	5.5
ASEAN	7.9	7.7	7.7	7.6	7.6
中 國	11.4	10.0	9.4	8.2	8.8
中 南 美	4.6	1.8	2.1	3.0	2.5
中 東	1.8	3.5	4.2	5.1	4.7
체제전환국	12.0	2.1	1.6	3.5	2.6
러 시 아	15.0	3.0	1.0	3.0	2.0
東 歐	3.5	5.0	5.0	5.5	5.3

주요 국별 경제성장률 추이



제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1993년 이후의 미국 경제의 활황세가 잇달아 취해진 금리인상 조치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들어 둔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회복이 기대되었던 일본도 연초의 대지진과 정치적불안, 최근의 급격한 엔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중본격 성장궤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었던 유럽 국가들도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반기 들어와 일본과 미국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유럽국가들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어 선진국 경제는 지난해 2.7%, 올해 2.6%로 성장률이 94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개도국 경제는 그 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의 추진과 멕시코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등으로 지난해 중 성장률이 5.2%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공업화, 개방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국내수요 확대 등으로 올해 다시 5.5%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과 NIEs,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은 인플레이를 우려한 긴축정책의 추진과 엔高 후퇴에 따른 수출 신장세 둔화 등으

로 올해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이나, 중동지역은 국제 유가의 회복 등으로, 그리고 中南美 경계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재유입 등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94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의 대열에 동참한 東歐圈 경제는 각국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과 외국인 투자의 증대 및 사유화 기업 등 민간 부문의 활성화에 따라 올해에도 성장률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들어와서 제반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러시아는 공업 생산의 상승세 반전과 IMF의 자금지원 등 대외 신용도 개선, 외국인 투자의 증대 등으로 올해에는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세계경기의 회복기 동안 주요국의 물가는 과거와는 달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정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번 세계경기의 성장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유가 등 1차산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데다 각국이 물가 상승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금융정책을 사용해 왔으며,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 임금상승 압력 등도

상대적으로 적었던데 기인한다.

선진국들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해에도 3% 수준에 머물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낮은 임금상승률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3% 이내의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거의 제로수준의 상승에 머물렀던 일본물가는 올해에도 임금안정과 엔高의 디플레 효과 등으로 1% 이내의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물가상승률도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책과 경기회복에 따른 공급능력 증대로 지난해 19.5%에서 올해에는 13.0%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들어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기가 다소 둔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금리는 올해에도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금리가 경기 둔화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국제금리의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독일의 단기금리는 내년 중반까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나, 연말에 가서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말부터 달러貨

가치의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선진국간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세로 반전된 엔/달러 환율은 올 초반을 고비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의 장기 금리가 경기회복으로 상승세로 반전되는 반면, 미국의 장기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여 미국의 금융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투자자금이 일본의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약세로 반전되었던 국제 유가는 올해에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원유 수요의 꾸준한 증가 및 OPEC의 생산상한선 유지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非OPEC 국가들의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OPEC 회원국들의 자국 할당량을 초과하는 원유생산으로 원유의 공급 초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올해에는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나, 전세계적인 물가·금리 안정, 개도국의 투자·소비 수요 확대, 기술관련 투자의 확대, 체제 전환국 경제의 성장대열 동참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를 비롯한 1차 산품가격이나 국제금리

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세계경제 여건은 여전히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아시아 개도국들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통상 압력도 거세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의 수출환경이 반드시 밝다고만은 할 수 없다.

(미국)

미국 경제는 94년부터 취해진 잇따른 공금리 인상 및 연초의 멕시코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지난해 들어 크게 둔화되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94년대비 연율 2.7% 및 1.3%의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3/4분기 들어와 미국경제는 수출 호조 및 주택투자 회복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4.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다시 미국 경제의 회복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94년도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는데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다소 위축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미국 경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경기는 설비투자부진 및 수출 둔화 등으로 지난해보다도 신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 경제성장의 견인역을 하였으나, 유럽지역의 경기회복세가 예상만큼 되지 못해 올해에는 신장세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폐소화 가치의 다시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어 멕시코에 대한 수출도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4월 중반 79엔 대까지 하락하였던 엔/달러 환율이 최근 100엔 대로 상승한 것도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94년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설비투자도 지난해 들어 신장세가 점차 둔화된데 이어, 올해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 동안 설비투자의 확충으로 인해 주요 기업들이 대체투자 및 신규투자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다, 미국 경기가 올해에는 수축기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다,

94년 말부터 진행된 장기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및 증권시장의 호황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설비투자의 급격한 둔화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의 높은 성장은 80년대 중반과는 달리 기업들의 높은 설비투자와 생산성 향상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만큼, 미국 경제가 과거와는 달리 급격히 둔화되거나 침체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연초에는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가 지난해 7월 聯準의 공금리 인하 및 이에 따른 시장실세금리의 하락과,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공금리 인하 조치 등에 힘입어 올해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주택 판매의 증가와 함께 가구 및 가전용품 등 가정용 내구소비재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는 건설경기도 장기금리의 하락기조에 편승한 抵當金利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앞으로 더욱 활기를 되찾으면서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었던 일본 경제가 아직 뚜렷한 회복 기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3년 10월에 경기 순환의 저점(低點)에 도달한 후 지난해부터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연초부터 간사이 대지진과 음 진리敎 사건 등 잇따른 재난 사건에 따른 사회 불안 무라야마 연립내각의 정책운용능력 한계 등에 거품경제의 후유증 지속 등 구조적 요인도 겹쳐 경기회복이 지연되었다.

여기에 지난해 3월붙어 4월에 걸쳐 엔貨 가치가 단기간에 20%나 상승하는 등 超엔高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가 다시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94년 동기비 0.3% 감소라는 침체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자 지난 9월 20일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규모(14조 2천2백억엔)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同대책은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확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향후 1년간 명목 GDP 기준으로 2% 포인트 이상 올

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간 경제 연구기관도 실질 GDP가 1% 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소비수요의 활성화, 규제완화 및 과감한 경제구조 개혁 근본적인 세계개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 강구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94년도와 비슷한 0.7%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에는 일본 경제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2%의 성장률을 타나낼 것으로 WEFA, IMF 등 주요 예측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 경기회복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9월 대규모 公共投資 증대를 중심으로 한 '종합경제대책' 발표로 그 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 및 기업의 설비투자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 대책도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진복구를 위한 건설투자 그리고 공장의 설비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산업생산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반도체, 전기전자 등 일부 성장주도 품목의 생산 및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경기회복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주택건설도 低金利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기회복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제약요인은 土地를 비롯한 자산 디플레 현상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문제, 그리고 엔貨 가치의 향방을 들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규제완화와 부실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엔貨 가치가 현재의 달러당 100~105엔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일본 경제의 회복속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하겠다.

(EU)

94년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EU경제는 지난해에는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독일,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의 성장 둔화로 지난해 EU경제는 94년도와 비슷한 2.8% 성장에 머물렀다.

이러한 성장세는 금리 안정과 투자여건 호전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성장 둔화에도 불

구하고 아시아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성장세 지속에 따라 수출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로 인해 민간 및 정부의 소비지출이 기대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별로 살펴보면 독일은 상반기 중 마르크貨 강세에 따른 수출둔화로 지난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2.5% 수준에 머물 것이며, 94년 3.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영국도 지난해에는 민간소비 둔화로 인해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프랑스는 지난해에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노력과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로 94년과 같은 2.9%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영국 등 EU에서 경제 적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성장이 다소 둔화된 것과는 달리 스페인, 핀란드 등 소국들은 지난해 들어 경기회복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초 EU 통합이 회원국의 확대로 나타나면서 역내 교역이 이들 국가의 새로운 성장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마르크貨 경제권을 제외한 통화 약세국들이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U경제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2.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은 그 동안 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던 수출 증가세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금리인하에 힘입어 기업의 설비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민간 소비도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라 완만하나마 회복될 것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독일의 경우 마르크貨 강세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舊東獨지역의 활발한 건설경기 지속과 舊西獨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로 올해에도 2.6%의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임금상승 및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2.7%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들어 수출 둔화로 경기 연착륙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英國은 올해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민간 소비가 다소회복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비슷한 2.6%의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실질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수입물가 안정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3.2%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의 실업률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기업의 감량 경영으로 지난해 11.4%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촉진 대책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자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실업률은 10.7%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에도 10%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과 현재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향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1993년 하반기 이후 실시된 경제안정화 대책으로 94년 11.4%로 성장률이 둔화된 중국경제는 지난해 들어서 물가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경기 연착륙의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지난 1~8월 기간의 공업생산은 94년 동기비 13.7% 증가, 94년 같은 기간의 17.5%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다. 또 고정자산 투자는 94년 동기비 16.8% 성장하여 94년 1~9월 중의 43.9% 증가에 훨씬 못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0%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고성장 과정에서 인플

레가 급등하고 지역별 계층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사회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물가안정 속의 적정 성장을 위한 경제 안정대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소비재나 농산물 공급을 증가시키고, 민영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 동안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하였던 외국인 투자규모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월 중 부문별로는 에너지와 철강을 포함한 국영 부문의 생산이 비교적 낮은 신장세를 보인 반면, 민영 부문의 생산은 비료 등 농산물 투입재와 TV, 냉장고 등 가구 소비재 부문이 20%를 넘는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산업생산이 둔화되고 있으나 지난해 들어 수출은 1~8월 기간 동안 94년 동기비 37.2%가 증가, 수입의 15.3%의 증가에 비해 훨씬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8월까지 15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수출증가율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소비재 및 인프라 관련 시설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180억 달러 정도에 달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8월 중 94년 동기비 19.8%를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8월에는 물가상승률이 14.5%를 기록함으로써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물가 억제를 주요 목표로 하는 긴축정책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물가 안정과 사회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긴축정책과 경제 부패 척결과 관련된 사정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21%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긴축정책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수요 억제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4%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 실적을 반영하여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둔화된 8~9%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긴축정책의 지속에 따른 경기 위축과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영기업 개혁으로 말미암아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것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등소평 사후 중국 경제의 정책 노선이 현재의 개

혁·개방을 계속 추진할 것인
가도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성
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도국)

94년 5.5%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였던 개도권 경제는 지
난해에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연초 이후 국제 투
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
로 성장률은 94년보다 약간 떨
어진 5.2%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지난해 초 멕시코 금융위기,
그리고 3~4월 중의 달러貨,
엔貨 등 주요 기축통화의 급격
한 환율변동은 신흥시장
(emerging market)이라 불리
는 東아시아, 中南美 開途國에
대한 국제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초래함으로써 지난해
개도국 경제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중 아세안 등 東아시
아 국가로부터 급격한 유출을
나타내었던 국제 투자자금은
하반기 들어 다시 이들 지역으
로 재유입되고 있으나, 이 과정
에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
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
기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운용에 적지 않은 제약

을 받고 있다.

선진국 경제에 대한 수출비
중이 높은 아시아지역은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 확대, 활발한
외국인 투자 및 엔고에 따른 수
출호조에 힘입어 지난해에도
7%대를 넘는 높은 성장은 올
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아시아 지역은
경제활황의 지속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물가 불안과 국제수지
악화 등이 현안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아세아 지역은 높은 성장세
를 투자확대 및 수출호조에 힘
입어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들
어와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내
구 소비재 수요 증가에 따른 내
구 소비재 수요 증가 등 내수부
문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건실한 성장에 따
라 WEFA, DRI, IMF 등 국제
경제기관들은 한결같이 2000
년까지 개도국이 세계경제 성
장을 주도하되 그 중심동력은
ASEAN을 비롯한 東아시아
지역에서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94년 2%에도 못미치는 저
조한 성장을 하였던 中東 경제
는 95년에는 국제유가의 안정
세에 힘입어 4%에 가까운 성
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으
로써 94년의 침체에서 확연히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산유
국들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으

며, 이스라엘 등 평화협상 관련
국들도 최근의 평화 분위기의
확산에 따라 무역과 투자가 크
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中
東 경제의 회복세는 올해에도
국제유가의 안정과 주요 산유
국의 구조조정 정책 성공 등에
힘입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한편, 中南美 경제는 지난해
초 멕시코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 둔화, 주요국에서
의 재정·금융정책 혼란,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
해 90년대 들어 가장 부진한
1.8%의 성장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에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2.5%의 성장
을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회
복하기 시작한 외국인 투자가
올해에도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에서의
물가안정은 금리안정과 소비심
리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수출부문의 호조도 제조업 생
산 및 투자, 고용 등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체제전환국)

90년대 들어와 시장경제체
로 전환과정에 있는 舊사회주
의권 국가들, 이른바 체제 전환
국들의 행보가 점차 활발해지
고 있다.

그 동안 극심한 성장감퇴를

겪었던 러시아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날로 나타나고 있으며 94년부터 본격적인 플러스 성장세에 접어든 東歐圈 국가들도 지난해 들어와 경기가 더욱 나아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나타난 러시아의 각종 경제지표들은 러시아가 수년간에 걸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시대를 맞이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상반기 중 러시아 경제는 -4%의 GDP 증가율과 -3%의 산업생산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양 부문에서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두 자리수의 마이너스 성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러한 경제실적 호조세는 하반기에 더욱 두드러져 지난해 러시아 경제는 94년의 -15% 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는 올해에 더욱 가속도가 붙어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소득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올해 러시아 경제를 밝게 보는 근거는 첫째, 민간부문의 활발한 생산활동 추세와 서비스 부문의 고속 성장. 둘째,

수출의 호조 및 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금 증가 등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여력 증대, 셋째, 환율변동 폭 상한제의 도입으로 루블貨의 가치 안정, 넷째, 러시아의 경제상황 호전과 대의 信認表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의 안정된 경제 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변수들도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올해의 대통령 선거로 정부의 긴축기조가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이 경우 그동안 유지되어 온 안정화 정책의 기조가 송두리째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 여부나 제2단계 民營化 작업의 성패도 향후 러시아 경제 성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94년 3.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성장세에 들어선 東歐 경제는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경제안정화 추세로 지난해에도 5%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東歐 경제가 호조를

보인 이유는 산업 전반의 생산 증대 외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증대 및 국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로 설비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東歐 경제는 올해에도 5.4%의 성장이 예상되어 지난해에 이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다, 불가리아·루마니아 등 改革 後發國의 경제개방도 가속화되고, 민영화 진전으로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별로는 슬로베니아가 공업생산 증대 및 수출호조로 7.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5.3~5.6%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정 및 경상수지 악화, 높은 외채부담 등의 경제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의 경우는 4.2%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